



사람

홍콩 영화배우 왕조현

실연으로 출가하다?

‘천녀유혼’으로 유명한 홍콩 영화배우 왕조현(42·사진)이 불법에 귀의해 스님이 됐다는 소식이 중화권 전역이 떠들썩하다.

중국 언론들은 훗날 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왕조현이 6월 초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화교계 사찰에 비구니로 출가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대만에 머물고 있는 왕씨 가족들이 캐나다 밴쿠버 소재 사찰에 왕조현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왕조현이 단순히 사찰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캐나다 밴쿠버서 출가 VS 긴 머리 아껴 삭발 NO

중국 언론은 그녀가 비구니로 출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사귀어 온 연인이었던 대만 가수 치첸(齊秦)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중화권 주요 사이트 시나닷컴은 왕조현 출가설에 대한 치첸의 반응을 전했다.

시나닷컴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치첸은 왕조현의 출가설을 듣고 가장 먼저 “모르는 일이지만 의외의 일도 아니다”며 “일찍이 캐나다를 방문해 왕조현을 찾았지만 전화연결이 안 됐다. 소식을 듣고 왕조현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지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또한 왕조현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왕조현의 출가설이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왕조현이 가장 아끼는 것이 그녀의 머리카락이었는데 삭발했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

왕조현은 1980~1990년대 홍콩의 톱스타로 국내에서도 이름을 떨쳤던 배우다. 1967년 대만에서 출생한 그는 학교 농구선수 시절 우연히 출연한 TV프로그램에서 광고모델로 캐스팅됐다. 장신의 키와 청순한 미모를 지닌 그는 ‘화중선’ ‘청사’ ‘신유성호접감’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해 멜로, 액션 코미디 등 다방면의 캐릭터를 소화해냈다.

또한 왕조현은 옛 연인 치첸과 1992년부터 티베트 사찰을 찾기도 하는 등 불교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1999년 두 사람이 재결합한 뒤 결혼식이 나들 때는 티베트에서 티베트식 결혼을 할 것이라 뉴스가 나왔을 정도로 티베트 불교 신도로 알려져 왔다. 최근 왕조현은 2003년 복귀작 ‘미려상해’ 이후 연예계를 떠나 캐나다에서 불법을 공부한다고 알려져 왔다. 출가 여부를 둘러싼 진실과 상관 없이, 왕조현이 불교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은은 기자

여름, 연꽃의 유혹이 시작됐다

봉선사·선원사·청운사 등 10여 곳 연꽃 축제



연꽃의 계절이다. 전국의 유명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백련으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는 제8회 하소 백련축제를 개최했다.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북 김제시 하소백련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백련을 이용한 천연염색, 단청문양, 태화그리기 등 각종 체험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7월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전국의 사찰과 연꽃단지에서는 연화장(蓮華藏)세계가 펼쳐진다. 지자체와 사찰이 주관하는 10여 곳의 연꽃축제에서는 연꽃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교 및 전통문화행사도 열려 일석삼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게다가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기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간접 포교효과도 커지고 있다.

현재 연꽃축제를 준비중인 대표적인 사찰은 여섯 곳.

3만평의 백련지를 자랑하는 김제 청운사는 7월 18~19일 ‘백련, 눈으로 듣다’를 주제로 대금연주, 퓨전 살풀이 등 퍼포머스가 가미된 공연과 괘불사진전, 관음불화전, 조형미술전, 불교조각전 등 갤러리 형식의 문화축제를 연다.

전북 사암승가회와 전북불교문화원은 7월 18~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유등제, 국악한마당, 청소년 페스티벌, 전통무술공연 등 문화체험장을 열고 사경, 연등만들기, 부처님그리기, 다도체험 등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태고종 서을 봉원사는 7월 22일~8월 5일 제7회 ‘서을연꽃문화축제’를 연다. 24일 오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연산재가 시연되고, 25일 오후에는 봉원사 풍물패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승무, 판소리 등의 행사가 열린다. 이어 8월 1일 오후에는 연꽃가오제가 진행된다.

2002년부터 연꽃축제를 연 강화선원사는 8월 5~9일 ‘제1회 세계연꽃음식축제’를 펼친다. 연근차, 연냉면, 연갈국수, 연빵, 연소면 등 31종

의 연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축제에서는 자연염색, 연화 도자기 빚기, 대장경 판각체험, KBS전국노래자랑(8일) 관람도 할 수 있다.

남양주 봉선사는 7월 25~26일 제5회 연꽃축제를 연다. 25일 봉선사 공원인 승가원(僧科園) 개장기념 산사음악회를 열고, 26일 타악 퍼포먼스와 연꽃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완주 송광사는 8월 8일 산사음악회를

열는 연꽃축제를 펼친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연꽃축제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7월 10~19일 부여읍 풍남리 궁남지에서는 ‘부여 서동연꽃축제’가 열린다. 7월 18일~8월 24일 태안 청산수목원에서는 ‘태안 연꽃축제’가 열린다. 또 7월 24~25일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에서는 ‘찾사밭과 연꽃축제’가, 8월 6~9일 무안군 일로읍 회산 백련지에서는 ‘대한민국 연산업축제’가 대규모로 열린다.

이와 같이 날짜를 정해 축제를 열지는 않지만, 연꽃이 아름다운 사찰과 연 서식지도 적지 않다.

백련, 흥련, 수련 등 갖가지 연꽃이 시민을 반기는 사찰들은 제주 법화사, 아산 인취사, 완주 옥련암, 안동 덕왕사, 칠곡 망월사, 강진 백련

사, 보성 대원사, 당진 정토사, 공주 영평사 등이 유명하다. 상주 공검지와 백련단지, 함평 달맞이공원, 진주 강주연못, 서산 성연전, 일산 호수공원 연꽃단지, 흥천 거북이마을, 화성시 제부도 연꽃농장 등도 구경할만한 곳이다.

해가 갈수록 연꽃을 보러오는 시민이 늘어나자 사찰과 지자체도 연재배지와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무안군 처립 연꽃을 산업으로까지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의 포교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사람이 불교문화 보급과 포교를 위해서라도 지역 연꽃축제에 참여하거나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조동재 전북지사장

사회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금주의 Hat

- 철우 스님 14선지식
- 세용 스님 08불자들
- 김희성 23강의실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

- 금강경의 눈으로 오늘의 한국불교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다 -

불교란 무엇인가, 출가 수행자란 어떤 존재인가, 참담한 심정으로 근본적인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한국 불교 오늘의 현주소이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몸짓이 절실하다. 뜻생명의 절절한 바람에 응답하는 참된 목소리가 목마르다. 이에 부처님, 대승 보살, 선사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참 대승, 새로운 대승불교인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을 연다.

야단법석 참여방법

- 일 정 : 불기 2553년 8월 14일 ~ 8월 18일(4박 5일)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일원(실상사, 작은학교, 한생명)
- 참가 대상과 등록금
취지에 공감하는 사부대중 (출가대중 10만원, 재가대중 20만원)
- 신청과 문의
실상사 중무소 063-636-3031, 3191,
일금계좌 : 513160-51-024632(농협: 예금주 실상사)
*미리 전화로 신청하시면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단법석 법사

움직이는선원 조실 무비스님, 전국선원수좌 대표 해국스님
움직이는선원 열중 향봉스님, 움직이는선원 열중 도법스님

야단법석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목적
① 초기, 대승, 선, 현대 불교가 하나의 불교로 관통되는 불교관 확립
② 이론과 실천, 수행과 생활이 통일되는 수행론 형성
③ 생명 평화 위기로 표현되고 있는 현대 문명의 문제에 응답하는 대안 제시
- 내용
① 소의경전 금강경의 눈으로 한국 불교 수행 문제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무비 스님께서 표준 금강경을 교재삼아 금강경 정신으로 한국 불교 수행 문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진단하고, 오늘의 한국 불교 수행자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 수행과 현실적 삶이 통일되는 수행의 정로를 제시한다.
② 선원 수좌의 눈으로 한국 불교 수행의 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해국 스님께서 그동안 선원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 수행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부정적 측면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③ 치열한 수행을 통해 안목을 얻은 이의 눈으로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한다.
향봉 스님께서 외국에서 치열한 수행을 통해 얻은 안목으로 경전과 어록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④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하나의 불교 수행론으로 통합시키는 이론적 대안을 모색한다.
초기불교 없는 대승불교는 없으며, 초기불교 또한 대승불교로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도법 스님께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가 서로의 분리 대립을 지양하고 하나의 불교로 회통하는 시론을 모색한다.
- 방법
○ 60분~90분 강의하고 참여 대중들이 120분 이상을 자유롭고 충분히 토론함.
○ 참가 대중들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단 내용을 더 다듬고 풍부하게 하여 한국 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바람직한 수행론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야단법석 일정표

	8월 14일(목)	8월 15일(금)	8월 16일(토)	8월 17일(일)	8월 18일(월)
04:00		세면	세면	세면	세면
05:00		예불	예불	예불	예불
06:00	100대서원 점심식	100대서원 점심식	100대서원 점심식	100대서원 점심식	100대서원 점심식
07:00	아침공양	아침공양	아침공양	아침공양	아침공양
08:00	도량기부기 자유시간	도량기부기 자유시간	도량기부기 자유시간	도량기부기 자유시간	도량기부기 자유시간
09:00	제2법석 (무비스님)	제4법석 (무비스님)	제6법석 (무비스님)	제8법석 (무비스님)	제10법석 (무비스님)
10:00	점심공양	점심공양	점심공양	점심공양	점심공양
11:00					
12:00					
13:00					
14:00	자유시간	자유시간	자유시간	자유시간	자유시간
15:00					
16:00	입재식	입재식	입재식	입재식	입재식
17:00	제3법석 (무비스님)	제5법석 (무비스님)	제7법석 (무비스님)	제9법석 (무비스님)	제11법석 (무비스님)
18:00	예불	예불	예불	예불	예불
19:00	저녁공양	저녁공양	저녁공양	저녁공양	저녁공양
20:00	예불	예불	예불	예불	예불
21:00	움직이는선원과 지리산성지향운동	5년 탁발순례와 불교계의 생명명화운동	이것이 있는 것은영언회		
22: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 주최 :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준) [화엄사·쌍계사·대원사·벽송사·실상사] ● 주관 : 실상사 ● 후원 : 현대불교신문